

54 | 중계기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피부 질환

성별	여	나이	47세	직종	중계기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최○○는 2002년부터 (주)○○테크놀로지에서 중계기조립, 안테나 납땜을 하던 중, 2007년 7월경부터 어지러움 무기력증이 있었다가 피부가 두꺼워지고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최○○는 2002년에 통신용장비 생산 업체인 (주)○○테크놀로지에 입사하여 중계기 조립 업무를 하였는데 일손이 부족할 때 납땜을 일부 하였다고 한다. 2006년 2월 이후 납땜을 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여, 이 이후부터는 납땜 작업라인에서 일했다고 한다. 중계기 조립 업무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였다. 납땜 작업라인은 전선을 PCB판에 인두를 가지고 붙이는 작업이다. 작업대에는 국소배기 장치가 달려있으며, 주로 액체 플럭스에 묻혀 작업하였고 납땜 후에는 유기용제(2가지를 섞어 썼다함. 연구원 방문시에는 에틸알콜 통만 발견함)를 가지고 용접부위를 닦아냈다고 한다. 땀납은 회사 초기를 제외하고는 납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납, 주석, 구리가 노출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2007년에 시행된 국소배기장치 점검에서도 제어속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최○○는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며, 과거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은 없었다고 하였다. 5-6년경부터 고혈압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2006년 2월 이후 본격적으로 납땀 작업을 하였는데, 2007년 7-8월 경 어지러움증, 무기력감이 발생했으며, 얼마 지나 턱이 두껍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몇 달 후에는 얼굴 전체가 빨개지게 되었다고 한다. 2008년 3월에는 유즙이 나와 산부인과 검사결과(2008.3.31) 유즙분비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증가해 있었고, 폐경기를 나타내는 성호르몬 수치를 보였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으며, 판독소견에서는 ‘뇌하수체의 미만성 비후’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시행한 프로락틴 검사(2008.4.23)에서는 정상폐경기 수치를 보였다. 2008.4.7 혈중 납 검사 결과, 1.4 ug/dl 로 정상범위(10미만)에 해당되었다. 2008.4.18일 ○○병원에서 시행한 피부 조직검사에서는 주사와 모낭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부 증상 때문에 작업 전환을 하여 2008년 12월경부터 약 2달간은 전혀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며, 주말에도 증상 호전은 없었다고 한다. 2달 후 다시 납땀을 하였는데, 이때 얼굴이 파가운 증상이 나타나고 불과 이마까지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4 | 결 론

근로자 최○○은

- ① 피부 조직검사 상 주사로 확진되었고,
- ② 납땀 작업이 주사를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으며,
- ③ 모낭염은 주사에 병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최○○의 주사는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